

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6. 26(수) / 총 1매(본문 1매)
담당 부서	운영지원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이윤상, 사무관 이병우, 사무관 윤준상 • ☎ (044) 201-3158, 3160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국토부는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이른바 ‘윤창호법’ 개정안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한 국토부 고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,
 -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무보직 대기발령 및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,
 - 향후,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.
-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에도 음주운전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6.26, 동아일보) >

- ◆ 국토부 도로국장 만취운전하다 적발/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
 - 전국 도로건설 관리를 총괄하는 도로국장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적발
 -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 받은 지 한달 넘게 지나 보직해임하고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에 회부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이병우 사무관(☎ 044-201-315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